

‘-뿐이’의 형태와 통사에 대하여1)

구 종 남
(전북대학교)

Koo Jong-Nam. 2000. On the Morphology and Syntax of 'P'uni'. *Linguistics* 8-2, 197-216. 'P'uni', the negative polarity item, acts like a postposi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orphological structure of 'p'uni' and to discuss the syntactic problems of the sentences which involve 'p'uni'. In this paper I verified that 'p'uni' derived from the structure 'p'un(only) + i-(copula)' by gramaticalization, and argued that the real subjects or objects are the expressions which represent the sister members of NP to which 'p'uni' attaches('p'uni' implicates the sister members semantically). And I proved that 'p'uni' - not the covert element 'amoodo(nobody)' - is the real negative polarity item in fact. In addition the reasons why the 'p'uni' sentences are restricted in imperative and suggestive sentences are discussed. (Chonbuk National University)

1. 문제의 제기

중양어를 제외한 전라, 경상, 충청, 강원 방언에서는 접사적 성격을 지닌 ‘-뿐이’가 쓰이는데, 이는 항상 부정 문맥(negative context)에서만 나타난다. 본고는 이 ‘-뿐이’의 형태 구조를 문법화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이의 극어적 성격과 이것이 쓰인 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뿐이’는 문법화되어 부정 문맥에서만 나타나는 접사적 성격을 지닌 ‘-밖에’와 그 의미 기능이 같다. 여기서 방언에서 쓰이는 ‘-뿐이’는 어떤 형태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부정 문맥에만 나타나는지 문제된다. 또 이 ‘-뿐이’ 구문의 통사적 속성도 문제가 된다. 즉, ‘-뿐이’는 ‘-밖에’와 같이

1) 이 논문은 1998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본고의 내용은 1999년 12월 16일에서 18일까지 열린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제26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에서 발표되었다.

NP에 결합될 때 그것이 결합된 NP가 주어나 목적어로 해석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 진정한 주어나 목적어는 무엇인가, 또 ‘-뿐이’ 뒤에 ‘아무도’와 같은 부정극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경우 시정곤(1997c)의 견해처럼 이것이 진정한 부정극어이며, ‘-뿐이/밖에’는 부정극어가 아닌가 등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이런 문제를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한다. 2.1에서는 방언에 나타나는 ‘-뿐이’의 극어적 속성을 확인하고, 이 구문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본다. 2.2에서는 ‘-뿐이’의 형태론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3에서는 ‘-뿐이’ 구문의 통사적 해석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즉, 3.1에서는 ‘-뿐이’가 결합된 NP 성분이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는가를, 3.2에서는 ‘-뿐이’를 부정극어라고 할 수 있는가를, 3.3에서는 명령과 청유에서 ‘-뿐이/밖에’ 구문이 제약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2. ‘-뿐이’의 형태 구조

2.1. 방언에서 ‘-뿐이’의 극어적 속성 및 이 구문의 특징

먼저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²⁾

- (1) 가. 미자뿐이 {안 왔다. *왔다.
나. 나는 밥뿐이 {안 먹었다. *먹었다.)
(2) 가. 명수뿐이 고향에 {못 갔다. *갔다)
나. 나는 두 권뿐이 {못 읽었다. *읽었다.)

(1), (2)에서 보듯이 ‘-뿐이’는 ‘안’ 부정문이든 ‘못’ 부정문이든 부정문만을 허용하고 긍정문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뿐이’가 항상 외현적인 부정극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3) 가. 너뿐이 누가 아냐?

2) ‘-뿐이’는 여러 방언에서 나타나지만 방언에 따라 그 용법이 모두 같다고는 할 수 없다. 본고에서 쓰이는 예문은 전라방언 자료임을 밝혀 둔다.

나. 내가 집뿐이 갈 데가 있나?
 다. 먹을 게 밥뿐이 더 있어야지.

(3)에서는 부정극어가 외현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뿐이'가 쓰였다. 그러나 (3)도 수사의문문이나 반어적으로 쓰인 문장으로서 의미상으로는 부정문이다. 따라서 '-뿐이'는 부정문맥에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부정극어라고 할 수 있다. 부정극어를 항상 외현적인 부정어를 허용하는 전형적인 부정극어와 외현적인 부정어는 없으나 부정문맥에 나타나는 의사 부정극어(pseudo negative polarity item)로 나눌 때(이환목 1977) '-뿐이'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뿐이'는 '-밖에'의 경우처럼 거의 모든 문장 성분에 결합 가능하다.

- (4) 가. 은주는 그것을 영이에게뿐이 안 주었다.
 나. 명호는 이를 아침에뿐이 안 닦는다.
 다. 그는 학교에서뿐이 공부를 안 한다.
 라. 그것은 가위로뿐이 잘라지지 않는다.
 마. 나는 그냥 열심히뿐이 안 했다.
 바. 정호는 그걸 만지기뿐이 안 했다.
 사. 그 소리는 가까이에서뿐이 안 들린다.
 아. 나는 미옥이가 거기에 있었다고뿐이 다른 말은 안 했다.

'-뿐이'의 이런 분포적인 특징으로 볼 때 이는 보조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뿐이'는 서법 제약을 받는다. 즉, 서술문 의문문에는 나타날 수 있으나 명령이나 청유문에서는 쓰이기 어렵다.

- (5) 가. ?*너뿐이 오지마.
 나. ?*이 책뿐이 읽지마.
 다. ?*미자에게뿐이 말하지 마.
 (6) 가. ?*우리뿐이 가지 말자.
 나. ?*회전그네뿐이 타지 말자.
 다. ?*수박뿐이 먹지 말자.

‘-뿐이’가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제약되는 것도 ‘-밖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다(박승윤 1997 참조).

2.2. ‘-뿐이’의 형태론

이제 ‘-뿐이’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NP+뿐이’는 부정문에 나타나지만, 이 NP는 항상 긍정적인 사태와 관련된다. 즉, (1가,나)는 ‘미자만 왔다’, ‘나는 밥만 먹었다’로 해석된다. 달리 말하면 이들은 각각 ‘온 사람이 미자뿐이다’, ‘내가 먹은 것은 밥뿐이다’는 뜻을 갖는다. 이 점에서 ‘-뿐이’의 의미는 보조사나 의존명사로 쓰이는 ‘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에서 보듯이 ‘뿐’은 체언 뒤에 결합되어 보조사로 쓰일 때나 의존 명사로 쓰일 때 모두 계사 ‘이-’를 후행시킨다.³⁾

- (7) 가. 민을 사람은 너뿐이다.
 나. 나는 그냥 따라왔을 뿐이다.

‘뿐’은 (7가)에서는 보조사로, (7나)에서는 의존 명사로 쓰였다. 이 때 ‘뿐’은 ‘그것 이외에 더는 없다’는 유일 한정 의미로 나타낸다. ‘뿐이’ 항상 계사 ‘이-’를 동반한다는 사실은⁴⁾ ‘뿐이’의 ‘이’가 계사 ‘이-’일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에서 보듯이 ‘-뿐이’는 이 형식 외에 다른 형식은 불가능한 굳어진 형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추측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8) 가. *연회는 민호뿐을 안 좋아해.
 나. *경희는 도서관뿐에 안 가.

위에서 보듯이 ‘-뿐이’는 ‘뿐을’이나 ‘뿐에’와 같은 형식으로는 나타날 수 없고 ‘-뿐이’ 형식으로 굳어진 것이다. 따라서 ‘-뿐이’가 항상 계사 ‘이-’를

3) ‘미자는 옷을 뿐 말이 없었다’에서는 ‘뿐이’ 계사를 동반하지 않고 나타났으나, 여기서도 ‘뿐’ 뒤에 계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4)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뿐’ 뒤에 다른 동사가 올 수 있었고, ‘뿐’에 ‘-에’, ‘-을’ 같은 조사가 결합될 수 있었다(박진호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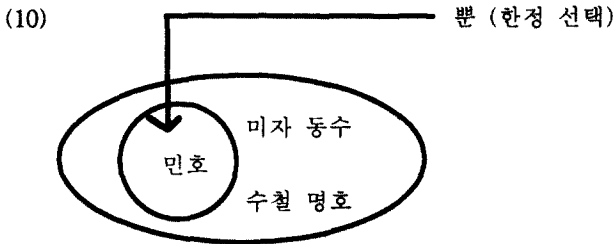
후행시킨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보조사나 의존명사로 쓰이는 ‘뿐’과 조사 ‘이-’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뿐이’는 ‘뿐이다’ 구조에서 왔을 가능성을 암시한다.⁵⁾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는 ‘뿐+이-’라는 통사적 구성이 어떻게 단순한 보조사와 같은 기능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떻게 ‘XP+뿐이’가 부정맥락에서만 쓰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뿐이’의 형성과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먼저 ‘뿐’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9) 온 사람은 민호뿐이다.

‘뿐’은 그 의미 특성상 담화상의 범위(domain of discourse) 안에서 자매항(sister members)이 분명히 전제되는데, 그 범위에서 유일하게 어떤 대상을 한정하여 선택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담화상의 범위에 드는 대상이 ‘민호’를 비롯하여 ‘미자, 동수, 수철, 명호’라고 할 때, ‘뿐’은 이 중에서 ‘민호’만을 유일하게 한정하여 선택하고, 담화상의 범위에서 나머지 원소 자매항은 제외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에서 ‘뿐’이 담화 영역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9)는 ‘안 온 사람’이 담화의 영역에 존재하나 이는 언술로써 나타내지 않고 ‘다른 사람(미자, 동수, 수철, 명호)은 안 왔다’는 함축

5) ‘뿐’도 이전에는 ‘만’과 같이 계사를 후행시키지 않고 체언 뒤에 결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만’과 분포적 기능이 분화되어 항상 계사를 후행시키는 것으로 발달했다(자세한 것은 박진호(1995) 참조).

(implicature)적 의미로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만일 (9)를 함축적인 의미까지 포함하여 언술로써 나타낸다면 (11)처럼 된다.

(11) 은 사람은 민호뿐이고 다른 사람(미자, 동수, 수철, 명호)은 안 왔다.

즉, ‘뿐이다’ 구문 (9)는 (11)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즉, (9)는 (11)과 같은 접속문으로 이해된다.

이제 ‘-뿐이’ 구문을 보기로 한다.

(12) 민호뿐이 안 왔다.

‘-뿐이’ 구성인 (12)도 ‘뿐이다’ 구성과 같이 ‘철수만 왔다’를 의미하는데, 이를 역시 ‘뿐이다’ 구조로 바꾸면 역시 (9)와 같다.⁶⁾ 우리는 ‘뿐이다’ 구성인 (9)와 ‘-뿐이’ 구성인 (12)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11)과 같은 문장이라는 사실을 통하여⁷⁾ ‘뿐이’가 (9)와 같은 구조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뿐이’ 구문인 (12)와 (11)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11)이 쓰일 자리에 ‘-뿐이’ 형식인 (12)가 쓰일 수 있다.

그런데 (12)와 비교할 때 (11)은 표현 형식에 몇 가지 잉여적 성분이 존재한다. 이는 가능한 한 간결한 표현 형식을 쓰려 한다는 언어의 경제 원리의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즉, (11)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각각 ‘오다’ ‘안 오다’라는 서로 상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가 쓰여 의미적으로 대립

6) ‘뿐이다’ 구문 (9)와 ‘-뿐이’ 구문 (12)가 접속문 (11)로 해석된다고 보는 것은 명제논리적인 지지를 얻는다. ‘-뿐이’ 구문은(‘뿐’ 구문도 마찬가지임) 명제 논리 측면에서는 단순명제가 아니고 복합명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9)는 진리치가 참인 ‘민호’가 술어 ‘오다’의 외연에 든다는 명제와, 거짓인 ‘다른 사람들(미자, 동수, 수철, 명호)가 술어 ‘오다’의 외연에 들지 않는다’는 명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윤재원 1989 참고). (11)의 후행문은 거짓 명제를 실제 언술로써 나타낸 것이다.

7) (9)와 같은 ‘뿐이다’ 구문과 (12)와 같은 ‘-뿐이’ 구문이 모두 (11)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9)(11)은 모두 술어논리 형식으로 ‘민호 \in C \cap < 미자, 명호, 동수, 수철: 다른 사람 > \notin C’로 나타낼 수 있다.(여기서 C는 ‘오다’의 속성을 가진 개체들의 집합(외연)을 나타낸다).

을 이룬다. 따라서 '뿐'의 의미를 생각할 때 선행절 서술어나 후행절 서술어 하나만 있어도 다른 서술어는 예측된다. 여기서 잉여적인 표현을 제거하면 (11)은 (13)과 같이 될 수 있다.

(13) (?)민호뿐이고 다른 사람은 안 왔다.8)

한편 (13)에서도 '뿐이고'의 의미를 고려할 때, '다른 사람'은 잉여적인 것이 된다. '뿐'은 대화의 범위에서 그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만을 유일하게 한정하고 담화의 범위에서 '뿐'으로 선택되지 않는 나머지 집합인 자매항은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에서 잉여적인 표현 '다른 사람'을 제거하면 (11)과 같이 된다.

(14) 민호뿐이(고) 안 왔다.

(14)는 (11)에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선,후행 서술어 중에서 잉여적인 선행 서술어 생략하고 '뿐'에 의해서 전제되는 후행절 논항을 생략하여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14)는 실제적으로 쓰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14)는 전형적인 계사 구문이 'A가 B이다'인데 계사 구문인 (14)는 선행절에 B에 해당되는 논항만 존재할 뿐 A에 해당하는 논항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고'가 접속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문 성분의 생략으로 인하여 접속어미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통사적으로 문제가 된다. 즉, 의미적인 잉여성의 제거를 통사적 구조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뿐이'의 기능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4)가 원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구성 (11)에서 의미적인 잉여적 성분의 제거에 의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뿐(이)'만으로도 후행문에 나타나는 다른 자매항이 전제되며, 후행의 부정 통사에 의해 선행문의 NP에 걸리는 서술어가 예측된다는 점에서, '-고'가 명시적인 접속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도 이 문장은 기원적으로는 접속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이 암시

8) 물론 (12)가 문맥이 전제되는 경우에 전혀 쓰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설령 쓰이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다만 '-뿐이'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이기 위한 절차를 보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되므로, ‘-고’는 접속 기능을 절대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이 약화되어 탈락될 수 있다. 그 결과 ‘-뿐이’가 한정적 의미를 가진 문법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뿐이’는 NP에 결합되어 ‘그것 이외에는’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처럼 기능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11)은 단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뿐이’의 문법화 과정으로 인하여 이것의 뒤에는 항상 부정 서술어가 나타나게 된다.⁹⁾ 우리는 ‘-뿐이’의 이런 과정을 통사적 형식 ‘뿐 + 이-’가 ‘-뿐이’라는 형태적 구성으로 기능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서 재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뿐이’ 형태의 문법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뿐 + 이고 (통사적 구성) -> -고 탈락 -> 뿐이 (문법 형태)
재분석

3. ‘-뿐이’ 구문의 통사적 해석

3.1. ‘NP+뿐이’의 주어/목적어(는항) 여부

이제 ‘-뿐이’ 구문에서 주어와 목적어와 관련된 논항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문제는 ‘-뿐이’의 기능이 ‘-밖에’와 같으므로, 박승윤(1997), 시정곤(1998)에서 논의된 ‘-밖에’ 구문의 주어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 (15) 가. 지금 방에 선생님뿐이/밖에 안 {계신다.*있다}
나. 지금 방에 동생뿐이/밖에 안 {없다.*계신다.}
(‘-뿐이’는 필자가 첨가한 것임)

이 예문은 박승윤(1997)에서 가져온 것이다. 박승윤(1997)에서는 존칭화를 야기시키는 것이 주어라는 전제하에 (15가)에서 ‘NP+밖에’는 주체 존재를 나타내는 ‘계시다’와는 호응하지만 ‘있다’와는 호응하지 못하고, 이와 반

9) ‘-뿐이’가 ‘뿐’에 단순한 접사 ‘이’가 결합되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보면 ‘NP+뿐이’가 부정 서술어와 직접 호응되지 않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대로 (15나)에서는 '동생'은 '계시다'와 호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선생님밖에'와 '동생밖에'는 논함으로서 주어의 기능을 수행하며, '-밖에'는 한정조사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뿐이' 구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상될 수 있듯이 'NP+뿐이/밖에'에서 NP를 주어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면, 주어될 사태의 주체로 볼 때, 만일 (15)에서 '선생님'이나 '동생'이 주어라면 '-뿐이'의 경우 이의 분열문 (16)과 의미가 같아야 할 것이다.

- (16) 가. 지금 방에 안 계시는 사람은 선생님뿐이다.
나. 지금 방에 없는 사람은 동생뿐이다.

그러나 (15)와 (16)은 의미가 반대가 된다. 즉, (15가,나)의 의미는 각각 '지금 방에 계시는 분은 선생님뿐이다'(지금 방에 선생님만 계신다) '지금 방에 있는 사람은 동생뿐이다'(지금 방에 동생만 있다)인데, 이를 분열문으로 바꾼 (16)은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밖에'의 한정조사적 기능이 NP를 표면적인 부정서술어의 의미와 반대의 의미로 관련시킨다는 무리한 가정을 하지 않는 한 '선생님'이나 '동생'을 주어로 볼 수 없다.¹⁰⁾

'NP+뿐이'가 목적어의 자리에 나타날 때도 그 의미를 고려할 때 이 'NP'가 목적어가 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 (17) 동수는 운동화뿐이 안 샀다.

(17)에서도 '구두뿐이/밖에'가 목적어가 되려면 이를 분열문으로 바꾼 (18)과 의미가 같아야 할 것이다.

- (18) 동수가 산 것은 구두뿐이다.

10) 박승윤(1997)에서는 또한 핵논항(core argument)만이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NP+밖에'가 수동문의 주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NP+밖에'가 주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시정근(1998)에서 비판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주어 위치에 나타난 'NP+밖에'가 의미적으로는 역시 서술어와 직접 호응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열문 (18)도 (17)과는 그 의미가 반대다. 따라서 'NP+뿐이'가 직접적인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10가)에서 존칭 서술어가 'NP+뿐이'와 호응되는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시정곤 1997c 참조).

그렇다면 'NP+뿐이/밖에' 구문에서 주어나 목적어는 무엇인가? 먼저 'NP+밖에'에 구문의 주어에 대한 시정곤(1997c)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 (19) 가. 지금 집에는 영화밖에 없다. (시정곤(1997c) 예문 (37))
 나. 지금 집에는 영화밖에 아무도 없다. (시정곤(1997c) 예문 (39다))

그는 (19가)는 기저구조에 (19나)와 같이 '아무도'와 같은 부정극어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밖에' 구문에서 '아무도'와 같은 부정극어가 필수적인가 하는 문제는 후술됨). 그리고 이 구문의 주어를 (20가)와 같이 'pro'로 본다.

- (20) 가. 지금 집에는 pro 영화밖에 아무도 없다.
 나. 지금 집에는 사람들이 영화밖에 아무도 없다.

그는 pro가 실제 명사로는 (20나)처럼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사람들'은 NP의 상위 범주어, 즉 NP를 포함한 담화상의 범위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러나 대화상의 범위 표현을 'NP+밖에' 구문의 주어로 볼 수 있다는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뿐이/밖에'가 표면상 주어 위치에 나타날 때 담화상의 범위 표현이 pro를 진정한 주어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을 보자.

- (21) 가.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회장이 되는가뿐이/밖에 중요하지 않다.
 나. ?그 사람들에게는 pro 누가 회장이 되는가뿐이/밖에 중요하지 않다.
 다.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회장이 되는가뿐이/밖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21가)는 ‘뿐이/밖에’가 간접 의문절에 결합되어 표면상의 주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21나)에서 보듯이 (21가)의 진정한 주어는 pro 설정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뿐이/밖에’ 구문의 주어가 pro로 설정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구문의 진정한 주어 논항은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21다)와 같이 ‘다른 것’을 잠재적인 주어 논항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담화의 범위로부터 ‘-뿐이/밖에’가 결합하는 NP를 제외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¹¹⁾

pro를 주어로 볼 수 없는 이유는 ‘NP+뿐이/밖에’가 목적어 자리에 나타날 경우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22) 가. 철수는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뿐이/밖에 못 느꼈다.

나. ?철수는 pro(?)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뿐이/밖에 못 느꼈다.

다. 철수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뿐이/밖에 다른 것을 못 느꼈다.

시정곤(1998)의 논리에 따르면 (22가)와 같이 ‘NP+뿐이/밖에’가 타동사 문에서 목적어 위치에 나타날 때 pro와 같은 잠재적 목적어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2나)와 같이 NP를 포함하는 담화상의 범위 표현인 pro를 목적으로 설정하기가 곤란하다. 본고에서는 위의 경우에도 (22다)와 같이 담화의 범위로부터 ‘-뿐이/밖에’가 결합하는 NP를 제외한 표현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위의 사실을 통해서 본고는 pro는 주어 논항이 되기 어려우며 잠재적인 논항인 ‘-뿐이/밖에’가 결합하는 NP의 상위 범주어인 담화상의 범위 표현을 주어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적어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19가)의 주어도 pro라기보다 (23)과 같이 자매항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3) 지금 집에 영희뿐이/밖에 다른 사람은 없다.

요컨대 ‘-뿐이/밖에’ 구문의 주어나 목적어는 이들이 결합하는 NP가 아

11) ‘철수뿐이/밖에 누가 숙제를 했습니까?’와 같은 ‘-뿐이/밖에’ 구문은 수사의문문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로서 외현적인 자매항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니고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논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잠재 논항은 담화상의 범위 표현이 pro가 아니고, '-뿐이/밖에'가 결합하는 NP 이외의 담화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 즉 자매항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¹²⁾

3.2. 'NP+뿐이'의 극어 여부의 문제

'NP+밖에'는 반드시 부정 맥락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부정극어라고 할 수 있다(Ahn 1991), 남기심(1993), 박승윤(1997) 등). 그렇다면 동일한 기능을 갖는 '-뿐이'도 부정극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 3.1에서 보았듯이 시정곤(1998)에서는 '-밖에'를 부정극어로 보지 않는다. 그의 이런 주장은 그에게 '밖에'를 부정극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 기본적인 의문에서 시작된다. 시정곤(1998)에서 제기하는 의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밖에'가 앞서 (3)에서처럼 수사의문문이나 반어적 의미의 문장에도 나타난다는 점과, 다음은 'NP+밖에'가 모든 부정문에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는 '-밖에'가 제약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의문은 '-밖에'의 부정극어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먼저 앞서 밝혔듯이(2.1 참조) 부정극어를 부정 맥락에서만 쓰이는 어사라고 할 때, 이는 반드시 외현적인 부정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앞서 밝혔듯이 외현적으로는 부정어가 존재하지 않으나 수사 의문문이나 반어적 표현과 같은 부정 맥락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부정극어(의사 부정극어)로 분류된다.

한편 '-밖에'가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제약된다는 사실은 더더욱 '-밖에'가 부정극어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부정극어라고 할 수 있는 '전혀', '미처', '도무지', '별로' 등도 다음에서 보듯이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제약되기 때문이다.

(24) 가. *너 전혀/미처/별로 밖에 나가지 마.

나. *우리 그 신문을 전혀/미처/별로 읽지 말자.

그런데 시정곤(1997c)에서 '-밖에'를 부정극어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결정

12) 본고에서는 '-뿐이'의 형태적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뿐이' 구문의 주어는 자매항 표현임을 암시했다.

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이제 과연 ‘뿐이/밖에’가 부정극어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는 ‘-밖에’가 부정극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밖에’의 속성이라기보다 기저에 ‘-밖에’ 구성이 동반하고 있는 [NPI] 자질을 가진 부정극어 ‘아무도’가 부정어와 호응하면서 결과적으로 ‘-밖에’ 구성 자체가 부정극어처럼 해석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¹³⁾

그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보인다.

(25) 가 지금 집에는 영희뿐이/밖에 없다. (시정곤(1997c) 예문 (39))

나. 지금 집에 영희뿐이/뿐이 \emptyset [NPI]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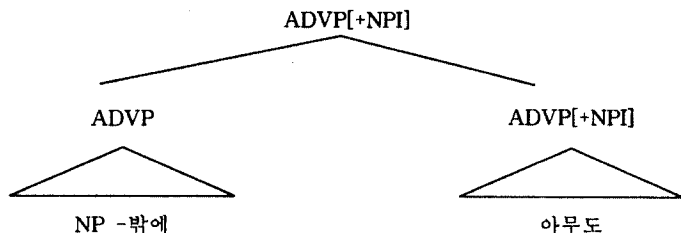
다. 지금 집에 영희뿐이/뿐이 아무도 없다.

(‘-뿐이’는 필자가 첨가한 것임)

그는 (25가)의 기저구조를 (25나,다)와 같이 보고 있다. 여기서 (25나)는 부정극성을 지닌 ‘아무도’가 외현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고, (25다)는 부정극어가 표면에 외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는 부정어 ‘없다’가 호응하는 것은 ‘아무도’에서 기인하는 [NPI] 자질을 가진 공범주 부사구이며 ‘NP+밖에’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그의 주장대로 과연 기저구조에 ‘아무도’와 같은 공범주가 필수

13) 시정곤(1998)에서는 ‘NP+밖에’ 구조의 기저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그는 전체 부사구는 핵인 ‘아무도’의 [NPI] 자질을 삼투원리에 의해 갖게 된다고 보고, 그 때문에 ‘NP+밖에’도 이 자질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는 부정극어처럼 해석되고, NP+밖에 구문에서 [NPI] 자질을 갖는 부정극어가 생략되면 ‘-밖에’ 구성이 더욱 부정극어처럼 해석된다고 한다.

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밖에/뿐이’ 구문에서 ‘아무도’가 필수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음 예문을 보자.

(26) 가. 동수뿐이/밖에 안 잤다.

시정곤(1997c)의 주장대로라면 (26)의 기저구조는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27) pro(사람들이) 동수뿐이/밖에 아무도 안 잤다.

그러나 주어가 ‘동수’의 자매항 표현이라고 보는 본고의 주장에 따르면 주어는 다음에서 보듯이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이 된다.

(28) 동수뿐이/밖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잤다

주어를 무엇으로 보는 (27)에서나 (28)에서 ‘아무도’가 필수적이 아니다. (28)에서 ‘아무도’는 전체 대화의 범위에서 ‘NP+밖에’의 NP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전체 즉, 자매항 표현 ‘다른 사람’이 부정될 때 나타나는 부정극어인데, 여기서 ‘다른 사람’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나 ‘아무도’를 부정하는 것이나 결국은 같은 것이 된다. 그렇다면 ‘아무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부정어가 숨겨진 부정 극어와 호응된다는 주장은 수증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아무도’와 같은 부정극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 문장이 부정문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담화범위 표현에서 ‘-뿐이/밖에’로 선택되어진 것 외의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도’가 임의적이라면 부정 맥락을 요구하는 ‘-뿐이/밖에’가 부정극어라고 볼 수 있다.

‘-뿐이/밖에’가 NP 이외의 성분에 결합될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무도’와 같은 것이 필수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29) 가. 나는 다리가 아파서 천천히뿐이/밖에 못 걸어.

나. *나는 다리가 아파서 아무렇게도 못 걸어.

다. 나는 다리가 아파서 천천히뿐이/밖에 빨리/달리는 못 걸어.

- (30) 가. 나는 그것이 회미하게뿐이/밖에 기억이 안 나.
 나. *나는 그것이 회미하게뿐이/밖에 아무러하게도 기억이 안 나.
 다. 나는 그것이 회미하게뿐이/밖에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
- (31) 가. 나는 밥을 조금뿐이/밖에 안 먹었다.
 나. *나는 밥을 조금뿐이/밖에 아무+만큼(?)도 안 먹었다.
 다. 나는 밥을 조금뿐이/밖에 많이는 안 먹었다.

시정곤(1998) 논의대로 숨겨진 부정극어가 있다면 (29-31)의 (가) 문장은 각각 (나)와 같이 되어야 하나 이는 비문이다. 오히려 (다)로 해석되는 것이다.¹⁴⁾ 이런 사실은 ‘NP+뿐이/밖에’ 구문에서 ‘아무도’와 같은 부정극어가 부정극어가 잠재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례가 된다. 따라서 ‘뿐이/밖에’가 부정 문맥만을 요구한다는 부정극어이며 ‘아무도’는 이 문장이 부정문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수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3. ‘-뿐이/밖에’가 명령,청유에서 제약되는 이유

이제 ‘-뿐이’가 명령이나 청유에서 제약되는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 (32)가. *소영이뿐이 자지 마라
 나. *진호뿐이/밖에 부르지 말자.

‘-뿐이/밖에’는 위에서 보듯이 명령이나 청유에서 제약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듯이 잠재적인 논항을 설정하면 이 서법도 가능하다.

- (33) 가. 소영뿐이/밖에 다른사람은(아무도) 자지 마라
 나. 우리 진호뿐이/밖에 다른 사람은(아무도) 부르지 말자.

‘-뿐이/밖에’가 이들 서법에서 제약되는 것은 물론 이 서법의 화행상의 특징이나 화행과 관련된 대화상의 범위 문제와 관련된 화용론적 문제도 존

14) 대화상의 범위에서 ‘-뿐이/밖에’가 결합되는 문장이 ‘-뿐이/밖에’로 한정되는 것 이외의 배타적인 것들과 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반의어가 논항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재할지 모르나,¹⁵⁾ 본고에서는 무엇보다도 명령이나 청유의 부정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뿐이’의 형성 과정에서 보았듯이 문법화된 ‘-뿐이’는 항상 뒤에 ‘안, 못’과 같은 부정소가 인접하여 나타나지만(‘밖에’도 문법화의 결과 나타났다는 점에서 ‘-뿐이’와 같다) 그 뒤에 오는 서술어는 부정 서술어를 이룬다(‘없다’, ‘모르다’는 그 자체가 부정 서술어다).¹⁶⁾ 즉, 이런 형식이 전형적인 ‘-뿐이/밖에’ 구문인 것이다.¹⁷⁾

그러나 명령이나 청유문은 그 부정 방식상 ‘-뿐이’ 뒤에 인접하여 부정소가 오지 않는다. 즉 위 (32)에서 보듯이 ‘-뿐이/밖에’ 뒤에는 일단 긍정 서술어인 ‘자-’, ‘부르-’라는 동사가 이어진다. 그 결과 이는 전형적인 ‘-뿐이/밖에’ 구문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뿐이/밖에’가 명령이나 청유에서 제약된다고 할 수 있다. ‘-뿐이/밖에’ 뒤에 바로 인접하여 명령이나 청유가 제약된다는 사실은 서술문이나 의문문에서도 구어에서는 장형 부정문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34) 가 수영장에 회영이뿐이/밖에 안 갔나?

나. (?)수영장에 회영이뿐이/밖에 가지 않았나?

(35) 가. 준비물을 민호뿐이/밖에 안 가져왔어요.

나. (?)준비물을 민호뿐이/밖에 가져오지 않았어요.

‘-뿐이/밖에’가 쓰였을 경우 단형 부정문보다 장형 부정문이 더 자연스럽지 못 한 것은 ‘-뿐이/밖에’ 뒤에 바로 부정소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가지 않다’나, ‘가져오지 않다’도 전체적으로는 부정 서술어이지만 부정 기능을 나타내는 ‘않다’가 뒤에 나타나므로, ‘않다’ 앞의 긍정

15) 시정곤(1998)에서는 ‘-밖에’가 이들 서법에서 제약되는 것을 ‘-밖에’의 문법 형태화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16) 물론 ‘뿐이/밖에’ 뒤에 잠재적인 자매항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뒤에 오는 서술어는 부정 서술어다.

17) ‘-뿐이/밖에’ 구문에서 잠재 논항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와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엄격히 말해 그 기능이 다르다. 잠재 논항이 표면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뿐이/밖에’에 결합된 NP 이외의 대화상의 범위에 드는 것이 외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점이 ‘뿐이/밖에’의 선행 NP에 놓이나 잠재 논항이 없는 경우에는 ‘-뿐이/밖에’가 결합하는 성분이 초점으로 이해된다.

서술어가 '-뿐이/밖에'와 바로 부정어가 연결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 (26)처럼 '다른 사람'이나 '아무도'와 같은 것이 나타나도 이 서법이 가능한 것은 이 경우에는 '-뿐이/밖에 Neg' 형식이 이들로 인해 방해를 받아, 주어나 목적어 논항인 '다른 사람'이나 '아무도'가 후행하는 부정 서술어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따라서 '-뿐이/밖에'가 명령이나 청유에서 제약되는 것도 바로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이런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¹⁹⁾

4. 결론

본고에서는 접사(보조사)처럼 쓰이면서 항상 부정 문맥에만 나타나는 '-뿐이'의 형태적 구조를 문법화의 측면에서 밝히고, '-뿐이' 구문의 통사론적 문제를 이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밖에'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본고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뿐이'는 의존명사나 특수조사로 쓰이는 '뿐'과 의미가 같다는 점에서 이것이 '뿐+이다' 구성에서 왔음을 논의했다. 본고에서는 '관형절 +뿐이' 구문과 'NP+뿐이 Neg V'는 결국 '관형절 NP+뿐이고 다른 NP(자매항 표현) Neg V' 표현이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뿐이'의 형성은 결국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NP+뿐이 Neg V'와 '관형절 +NP뿐이고 NP(자매항 표현) Neg V'에서 후자는 '뿐'의 의미로 인하여 표현의 잉여성이 나타나 이 잉여성을 제거할 때 'NP뿐이고 Neg V'는 통사적인 파격을 이루게 되어 '뿐+이-'가 문법화를 일으켜 형성된 보조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본고에서는 'NP뿐이/밖에' 구문의 통사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기왕의 견해(시정근1998)를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NP+

18) 박승윤(1997)에서는 '밖에'의 경우는 이 잠재 논항이 '철수밖에 다른 사람이 안 왔다'와 같이 '다른 사람'을 복원하면 'NP+밖에'가 후치사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밖에'가 한정조사로 쓰인다고 이들의 차이를 구별한다. 그러나 '-뿐이'의 경우는 이런 구별이 불가능하다.

19) 한편 '-뿐이'의 문법화가 명령이나 청유가 아니라, 2.1에서 가정된 것처럼 서술법(혹은 의문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밖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됨) '-뿐이/밖에 + 부정소' 구성은 본질적으로 서술법이나 의문법에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도 가능하다.

뿐이/밖에' 구문에서 주어나 목적어 논항은 'NP+뿐이/밖에' 앞에 대화상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인 NP의 상위어 pro가 아니고, 'NP+뿐이/밖에' 뒤에 오는, 담화의 범위에서 'NP+뿐이/밖에'의 NP를 제외한 자매항을 대신하는 표현이라고 보았다.

또한 '-뿐이/밖에'는 부정극어가 아니고 잠재적인 극어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무도'와 같은 부정극어가 'XP'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뿐이/밖에' 구문이 부정문이기 때문에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진정한 극어는 '-뿐이/밖에'라고 보았다. '아무'형 부정극어가 항상 설정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로써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한편 '-뿐이/밖에' 구문이 명령이나 청유에서 제약되는 것은 그 서법의 부정 방식 'V + 말-' 때문이라고 보았다. '-뿐이/밖에'는 문법화되어 항상 부정소가 뒤따르는데, 명령이나 청유의 서법은 부정 방식상 긍정의 서술어가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뿐이/밖에' 구문의 전형적인 형식과 상충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평서법에서나 의문법에서도 서술어가 앞에 오고 부정 형식이 뒤에 오는 장형 부정문의 경우에는 '-뿐이/밖에' 형식이 자연스럽게 못하다는 사실이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참고문헌

- 고연희. 1993. "부정극어에 대한 연구", 언어학논집 3, 언어정보연구원.
 구종남. 1992. "국어 부정문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구종남. 1995. "장형부정문에서 '-지'의 기능", 국어국문학 115.
 김동식. 1981. "부정 아닌 부정", 언어 6.2.
 박승윤. 1997. "'밖에'의 문법화 현상" 언어 22.1.
 박진호. 1985. '만', '뿐', '따름'의 문법적 지위에 대하여, 국어학 논집 2, 태학사.
 시정곤. 1997a. "국어의 부정 극어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19.
 _____. 1997b. "국어의 부정극어 허가조건", 언어 22.3.
 _____. 1997c. "'밖에'의 형태-통사론", 국어학 30.
 심재기 외. 1985. 의미론 서설, 집문당.
 윤재원. 1989. 국어 보조조사의 담화분석적 연구, 형설출판사.
 이환목. 1977. "국어의 극어와 화용상의 가정", 어학연구 13.2.
 임홍빈. 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 10.
 장경기. 1986. "국어 부정 의문문과 전제", 어학연구 22.1.
 전병래. 1984. 한국어 부정구조의 분석, 한신문화사.

- 최정희. 1994. "부정극에 대한 연구", 언어학논집 5, 언어정보연구원.
- 최정희. 1996. "Negative Polarity Item(NPI) Licensing", 언어학 논집 7, 언어정보연구원.
- 홍사만. 1983. 국어 특수조사론, 학문사.
- Ahn, H.D. 1991. *Light Verbs, VP-Movement, Negation and Clausal Architecture in Korean and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of Uni., of Wisconsin. Hanshin Publishing Co.
- Borkin, Ann. 1971. "Polarity Items in Question", *CLS* 7.
- Choi, H.S. 1988. *Restructuring Parameters and Complex Predicates: A Transformational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of MIT, Hanshin Publishing Co.
- Givon, Talmy. 1984. *Syntax 2*, Volume I,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orn, L. 1978b. "Some Aspects of Negation", in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 _____. 1989. *A Natural History of Neg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ng, Y.J. 1995. "Floated Quantifiers, NPIs, and Move-F Theory", ms., Harvard University.
- Kim, S.W. 1995. "The Negative Polarity Item Licensing in Korean: An Alternative to NegP",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5.
- Kuno, S. 1994a. "Negative Polarity Items in Japanese and English", Preliminary Draft.
- Kuno. 1994b. "Negative Polarity Items in Korean and English", Paper in Korean workshop at SOAS.
- Ladsaw, W.A. 1980. *Polarity Sensitivity as Inherent Scope Relations*, Geland Publishing, Inc., New and London.
- Ladsaw, W.A. 1982. "On the Notion *Affective* in the Analysis on Negative-Polarity Items", *Journal of Linguistic Research* 2.
- Ladsaw, W.A. 1983. "Logical Form and Conditions on Grammaticality", *Linguistics and Philosophy* 6.
- Laka, I. 1990. *Negation in Syntax: On the Nature of Functional Categories and Projections*, Doctoral Dissertation, MIT.
- Lee, K.R. 1993. "NPI Licensing and Domain of A-Movement",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 Hanshin Publishing Co.
- Linebarger, M. 1987. "Negative Polarity and Grammatical Representation",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0.3, D. Reidel Publishing Co.
- Progovac, L. 1993. "Negative Polarity: Entailment and Binding",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 Reinhart, Tanya. 1976. Polarity reversal : "Logic and pragmatics?", *Linguistic Inquiry* 7.4.
- Sohn, K.W. 1996. *Negative Polarity Items, Scope, and Economy*, Doctoral Dissertation, Uni. of Connecticut. Thaeaksa.
- Suh, J. H. 1990. *Scope Phenomena and Aspects of Korea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Uni. of Southern California.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 jnkoo@moak.chonbuk.ac.kr